

생산성 향상과 소비확대로 불황 이겨내자!

| 동향 |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로 산지시세 인상을 기대하였으나 계속되는 계란 생산과잉으로 시세인상은 고사하고 지난 12월 계란가격 현실화 이후 다시 늘어난 할인가격으로 산란계농가는 우울한 명절을 맞이하였다. 대개의 산란계농가들은 설과 추석을 맞추어 산란계병아리 입식과 산란성계 출하계획을 세우는데 설 명절을 전후하여 난가가 하락하고 산란계 성계육 출하가 지연되면서 농가들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 들게 되었다. 타축산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계란 자급률(95% 이상)은 자체 소비 의존도가 매우 높아 생산량과 소비량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약간의 변동에도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4분기 산란계 사육수수는 71,877천수로 전년 동기(67,674천수) 대비 6.2% 증가한 역대 최고치로 계란 생산잠재력, 산란사료 생산량, 산란성계육 도축수 등 각종 지표에서 월등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각종 매스컴과 신문기사에서 계란가격 폭락을 주요 소재로 보도하고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계란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브랜드란들의 지나친 판매가격으로 인한 소비감소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계란의 공급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계란소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가격 폭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공급과잉의 불황을 계속적으로 예고하였으나 산란계농가들은 오히려 사육규모를 확대하여 현재의 불황을 초래하였다.

| 자료분석 |

지난 1월 산란종계병아리 입식은 없으며, 산란실용계 병아리 판매수수는 3,016천수로 전월(4,403천수) 대비 31.6%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4,352천수) 대비 30.7% 감소하였다. 12월 육추사료 생산량은 35,470톤으로 전월(34,061톤)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34,948톤) 대비 1.5% 증가하였다. 산란사료는 225,210톤으로 전월(201,803톤) 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208,873톤) 대비 8.2% 증가하였다. 12월 산란종계사료는 6,189톤으로 전월(5,893톤)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5,994톤) 대비 3.3% 증가하였다. 한편 12월 산란성계육 도축수수는 3,088천수로 전월(3,079천수)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2,084천수) 대비 48.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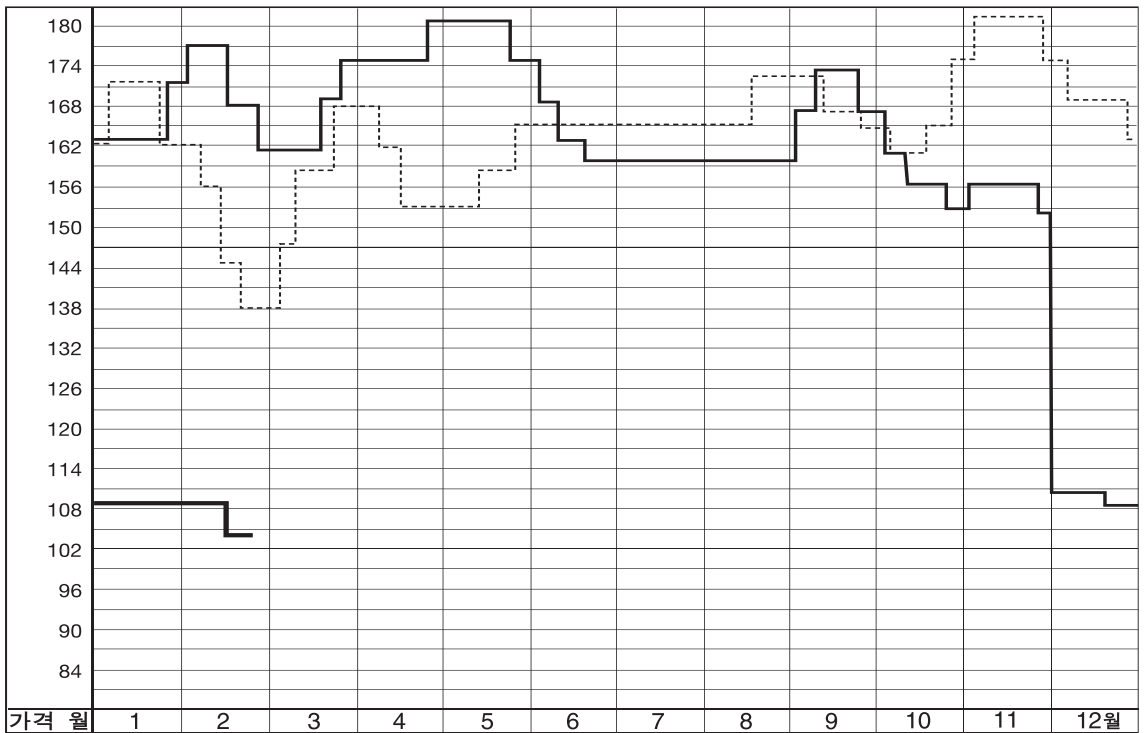
| 전망 |

2월말 각급 학교들의 개학으로 대형급식업체 및 식당의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늘어난 계란 생산물량으로 시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산란계 사육농가수는 1,934호였지만 농가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15년 3분기 산란계농가수는 1,149농가로 40.5%가 감소하였다. 이중 5만수이하 농가수는 748농가(65.1%)로 기업농 진입 및 대군농가 등으로 외형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을 뿐 전체적인 영세성은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란계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정부는 계란에 대한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현재보다 더욱 강한 규제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산란계농가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달의 계란전망

이상목 차장
경영정책국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4 -- 2015 -- 2016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3	63,000	2,139	27.0	181.9	1,075	1,079
	2014	45,300	3,499	28.4	192.2	1,050	1,678
	2015	101,280	4,352	33.2	204.2	1,450	1,645
	2016					1,150	1,090
2	2013	74,880	633	25.6	155.4	1,075	1,088
	2014	5,160	3,842	24.7	168.5	1,050	1,474
	2015	69,000	3,350	30.5	178.6	1,379	1,711
	2016						
3	2013	18,000	3,819	22.7	166.7	1,066	1,145
	2014	64,000	2,635	25.4	176.7	1,172	1,570
	2015	39,700	4,285	34.1	197.7	1,350	1,667
	2016						
4	2013	31,000	3,691	22.6	178.8	1,050	1,480
	2014	48,000	4,194	27.8	176.5	1,321	1,596
	2015	80,000	3,816	35.0	197.3	1,350	1,758
	2016						
5	2013	50,000	3,430	26.3	176.8	1,050	1,451
	2014	54,080	3,752	29.7	175.6	1,450	1,582
	2015	64,000	4,529	34.5	193.0	1,300	1,787
	2016						
6	2013	49,920	2,832	29.2	151.0	1,050	1,282
	2014	48,500	3,273	28.7	163.8	1,450	1,650
	2015	24,000	4,298	35.6	192.4	1,278	1,646
	2016						

7	2013	79,500	3,453	29.3	166.9	1,050	1,432
	2014	52,500	4,258	31.4	172.0	1,450	1,650
	2015	123,840	4,087	36.5	195.0	1,250	1,600
	2016						
8	2013	53,000	3,205	27.3	162.6	1,050	1,478
	2014	45,000	3,418	29.9	174.4	1,450	1,679
	2015	70,394	4,083	34.1	187.1	1,250	1,600
	2016						
9	2013	11,000	3,225	27.7	167.9	1,050	1,633
	2014	44,960	3,460	31.7	174.6	1,450	1,691
	2015	39,000	3,481	33.9	207.6	1,250	1,695
	2016						
10	2013	20,000	3,442	31.2	178.4	1,050	1,557
	2014	22,880	3,700	33.4	188.9	1,406	1,647
	2015	64,500	3,387	34.8	209.4	1,250	1,587
	2016						
11	2013	45,760	3,128	28.9	177.3	1,050	1,640
	2014	76,400	3,754	30.3	182.7	1,450	1,804
	2015	63,000	3,451	34.1	201.8	1,250	1,551
	2016						
12	2013	59,200	3,203	29.9	188.8	1,050	1,590
	2014	29,600	4,536	34.9	208.1	1,450	1,692
	2015			35.5	225.2	1,150	1,101
	2016						
계	2013	554,960	36,200	327.6	2,052.5	1,056	1,405
	2014	536,380	44,321	356.3	2,154.0	1,346	1,643
	2015			411.7	2,389.4	1,292	1,612
	2016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